

평화드림 5만리를 추억하며

지현준

I. 사람들을 추억하며

처음 평화드림 5만리를 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저 유럽만 눈에 보인 상태로, 유럽만을 바라보며 신청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켜보면 유럽만을 바라본 사람이 간 것 치고는 얻어간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또, 평화드림 5만리 여정을 출발하기 전날 짐을 챙기면서 낯선 사람들과 2주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들었다. 네덜란드에 도착했던 첫 날만 해도 도대체 2주의 시간은 어떻게 흐를까. 시간은 왜이리 느리게 가는 걸까란 생각과 함께 사람들과 아직 친해지지 못해 어색한 공기가 흐르던 순간들이었지만, 점점 날이 지나고, 관광할 때, 서명 받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나의 걱정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도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 할 수 있는 룸메이트 형의 덕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여정이 지나갈수록 들었던 생각은 “내가 왜 이 사람들과의 벽을 쌓고 있었던 걸까?”라는 것과 내가 더 용기내어 이 분들에게 다가갔다면, 이 좋은 사람들을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었다. 참가자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 다시금 너무나 소중해지는 것 같다. 또한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대개 같은 팀원들과의 교류만 가능했었는데, 다음 평화드림 5만리 여정을 준비할 때는 서로의 준비과정을 공유하고 목적을 위한 퍼포먼스를 연습하는 시간은 물론 다른 팀원들과 친목을 다지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정 중에 한번 몸이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다. 그때 혼자 앓고 있다가 옆자리 친구에게 “나 약간 몸이 안좋은 것 같아”라고 넌지시 이야기 했었는데 어느새 그 소식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약을 챙겨주고, 옷을 입으라고 하고,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팀원이었던 한 사람이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스쳐가는 인연들이 너무 오랜만이라, 헤어짐이 너무 아쉽고 슬픈 것 같아.”라고. 나도 이 이야기에 너무나 공감한다. “평화드림 5만리”라는 이름 아래 모여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목적을 이루고 다시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갈 때 느끼는 그

아쉬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 여정을 마치고 공항에 돌아와 해단식을 한 다음 사람들과 서로 안아주며 작별인사를 했을 때, 그리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을 때 이게 사랑임을 느끼며 인연의 소중함, 그리고 사랑의 소중함을 느꼈다.

다시 한번 이들을 만났을 때 유럽에서의 우리를 추억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싶다.

II. 유럽을 추억하며

평화드림 5만리의 여정은 네덜란드 - 독일 - 체코 - 폴란드 - 오스트리아 순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나라가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폴란드였다. 폴란드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었고 그저 우크라이나 근처여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반만 맞는 답이었다.

물론 폴란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5개 나라 중 가장 기대를 하지 않았던 터라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과 한적함이 나를 맞아준 것도 한 몫 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우리 여정의 목적과 이유는 "평화"였다. 나는 폴란드에서 이 "평화"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처음 폴란드에서 내려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할 때 근처에 있던 우크라이나 관련 모금을 받는 사람들과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모금도 하고, 우리의 서명도 받으면서 짧게 나눴던 대화였는데,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그저 서로의 평화를 응원하는 대화였다. 나는 그 한마디에서 그들의 단단함과 슬픔, 고통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두번째로 아우슈비츠에 방문했을 때, 그곳은 굉장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나는 그 평화가 한편으로 조금은 무서웠다. 가이드분의 안내를 따라 유대인 학살의 과정과 남겨진 그들의 물건들, 학살의 장소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지금 이곳의 평화는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룩된 것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특히 가슴이 아팠던 것은 유대인 아이들의 신발을 모아둔 곳을 방문했을 때였다. 이곳에서 전쟁의 참혹함, 학살의 공포 그리고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다.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폴란드에 간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분명 있지

만, 전쟁으로 인한, 폭력으로 인한 평화를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